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5월 22일(주일) 제1100호

다음세대에 창조신앙을!



5월 26~28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창조신앙교육축제'
김영길 박사, Steve Ham, 박은조 목사, 이재훈 목사 강의



창조신앙교육 축제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창조신앙과 자녀 양육'을 주제로 개최된다. 5월 26일에는 창조신앙교육축제(CCFE), 아시아창조컨퍼런스(AACC), 자녀양육솔루션이 진행된다. 자녀양육솔루션은 차

세대, 청소년, 청년을 둔 부모와 교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김영길 박사(전 한동대총장), Steve Ham(미국 AIG 대표)이 강의한다. 현직교수 6명이 '창조과학'을 주제로 강연회도 한다. 저녁에는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가 '예수님의 친구를 키우는 교육'을 주제로 집회를 인도한다.

5월 27일 오전에는 '창조신앙과 기독교 교육'을 주제로 현직 교사가, 오후에는 '창조소명과 교육개혁'을 주제로 현직 교수가 강연회를 한다. 청년들의 고민을 다룬 청년 웹드라마

'스드메'가 상영되고, 패널 토의도 진행된다. 저녁집회에서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특별 찬양을 하고,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한다. 5월 28일에는 어린이부터 청년들이 참여하는 '창조과학캠프 및 비전축제'가 열린다.

이은일 장로는 "어린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참석하는 창조신앙교육축제를 통해 창조신앙이 다음세대에 전수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창조신앙교육축제 참가신청은 홈페이지(<http://ccfe.kr>)나 주일통합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533, 02-419-6465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예수님이야기'



차세대가 2016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연다. 6월 4일부터 26일까지 '예수님이야기(The Jesus Story)'를 주제로 국내외에서 진행된다. 주일학교 교사와 여름캠프나 국내외의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참석하면 유익하다.

2016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는 6월 4일 양재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6월 11일 강동, 6월 18일 수원, 부천,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해외 교사강습회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상해, 청도, 대련, 단둥 등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www.onnuri.org/event/adventure2016). 등록비는 사전등록 1만5천 원, 당일등록 2만원이다(하나은행 573-910003-60104 예금주: 온누리교회어드벤처).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부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성황리 막 내려

24번째 러브소나타가 오카야마에 울려 퍼졌다. 총 2,306명(일본인 1,845명, 한국인 461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의 열매도 풍성했다. 일본인 81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성경과 기독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참가자도 349명이나 됐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는 5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18일에는 그란비아 호텔에서 '한일국제교류포럼'과 오카야마 심포니홀에서 '가스펠나이트 집회'가, 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교회세미나'와 '러브소나타 집회'

가 열렸다. 2001석의 행사장이 입추의 여지없이 꽉 들어찼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미래를 잇는 꿈'을 주제로 오카야마 시민들에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설교했다. 이 목사는 "이시이 주지, 오히라 마고사부로 등 오카야마의 대표적 크리스천 선각자들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세상을 바라본 것"이라며 "부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5면).

/ 정현주 기자

내일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약 430명 참석

드디어 내일 65세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오른다.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복드림콘서트의 주제는 '나의 부모님께 소중한 행복을 드립니다'이다. 자녀들의 초청을 받은 전도대상자 약 4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교회 주차장 이용이 맞춤전도 대상자들만 가능하다. 교회 맞은편 신동아쇼 핑센터 주차장(유료)도 이용할 수 있다.

행복드림콘서트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개그맨 이흥렬, 이성미, 방송인 오미희, 가수 이무송, 노사연, 샌드애니메이션 박진아 작가, 국악찬양팀 가이랑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2013년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부모 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는 결신율이 매우 높다. 2013년 75%, 2014년 81%, 2015년 90%가 부모 초청 전도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고려인 섬기는 ‘CIS교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열여섯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안산에서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CIS교회’다. 카자흐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다 추방당한 고려인 김 알렉사이 목사와 이슬라바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CMN드림팀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섬기고 있다.

(*CIS란 구 소련 해체 후 생긴 독립국가연합이다.)

고려인은 소련이 붕괴 된 이후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을 지칭한다. 1937년까지 약 17만 명의 한국인이 연해주 인근에서 살았는데 그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렀다. 1935년부터 연해주 인근에 살던 고려인들이 일본의 첩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소련의 스탈린이 죽고 난 이후 1956년부터 고려인들에 대한 거주 자유가 보장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라시아 전역으로도 이주하게 되었다. 지금은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전역에 약 47만 명의 고려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고향인 한국으로도 이주했다.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선교가 어려운 지역이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종교의 자유가 생겼지만 이슬람이 득세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나날이 증가하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도움의 손길 부족



CMN드림팀 성도들이 진료를 하고있다.

고 있다. 김 알렉사이 목사와 이슬라바 목사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추방을 당했다. 본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한국에 있는 고려인들이 잘 훈련 받고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부흥 기대

지난 8일 방문한 CIS교회에는 문 앞까지 성도들이 가득했다.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예배 드리는 성도도 있었다. 고려인 성도들이 어찌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예배분위가 무척 뜨거웠다. 그 현장에서 CIS교회의 소문난 일

꾼 에두아르트 형제를 만났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 잘하기로도 소문이 났다. 주일에도 일을 해달라는 부탁이 끊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한 번도 주일에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를 살수가 없거든요.”

그에게 주일예배는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다. 그도 다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이 달라졌다. 그렇게 힘들던 한국 생활이 재미가 있었다. 예수님 생각만하면 힘이 났기 때문이다. 비자갱신 하러 본국에 갔다가도 하루 빨리 한국에 오고 싶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한국생활에서 가장 즐겁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물었

더니 곧바로 “예배”라고 했다.

에두아르트 형제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고려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날도 교회에 처음 나온 고려인 새신자가 7명이나 됐다. 매주 많은 고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러한 부흥은 CIS교회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려인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시흥, 인천, 부천, 안산, 경남 김해에 고려인 교회가 있다. 주로 본국에서 사역하다 추방당한 고려인 목사들이 세운 교회다. 대부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만큼 중앙아시아에서의 사역이 어려워 졌다.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만큼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 와 있는 고려인들의 부흥은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도움의 손길이 상당히 부족하다. 김 알렉사이 목사는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목회를 시작했다. 그 선교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CIS교회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이 고려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 온누리교회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예수님 믿고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섬겼으면 좋겠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 좋겠다. 안산 CIS교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화성시 남영동,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예배처소를 섬기는 것도 좋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고려인도 있지만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러시아어를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의료선교팀 CMN드림팀이 매월 한번씩 CIS교회를 방문해 고려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문의 : 김 알렉사이 목사(CIS교회)

010-8432-4040

우승엽 팀장(CMN드림팀) 010-4230-147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외벽 수리 중인 월전교회.

지난 1월 31일자 신문에 ‘월전교회를 도움시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월전교회 문경두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교회 수리를 마쳤으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깨끗한 예배당을 소원하였습니다. 25년 된 예배당을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었거든요. 비가 새는 천정, 빗물이 스며드는 내벽, 들이치는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는 창틀, 냉기와 습기를 머금었다 뽀아내는 바닥, 시멘트 블록 한 장으로 급히 쌓아 올린 벽체 건물을 두고 예배당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하였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보다 더 빨리 늙어 갔습니다. 낡아가는 예배당을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릴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 다. 그렇게 세월만 보냈습니 다.

바닥과 벽면이 온통 냉기를 뿜던 지난겨울 어느 날, 예배 중에 석유난로가 꺼져 버렸습니다. 석유난로는 중간에 꺼지면 냄새와 미세먼지가 발생해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교인 중에는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호흡기가 좋지 않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예배당을 수리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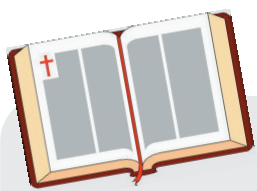
고 마음먹었습니다. 빗물이 새는 천정도, 내외벽 단열도, 바닥 난방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있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사견적을 받아 봤더니 못해도 3천5백만 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급했습니다. 페인트가 하얀 가루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 예배당, 바닥에 온기가 도는 예배당, 추위에 발벌 떨지 않아도 되는 예배당,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깨끗한 예배당은 저에게 너무나 큰 바람이었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 어느 날 온누리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대형교회가 작은 어촌교회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큰 위로가 됐습니 다. 그렇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온누리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 기사를 본 어느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두 집사님 모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곳

에 쓰라며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낡아가 풀리자마자 교회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공사가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붕과 외벽을 잘 마감하였고, 창문도 홀 창을 견여내고 이중창을 새로 달았습니다. 냉난방 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는 비가 새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발벌 떨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온누리신문과 온누리교회 성도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어촌교회 목사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문경두 목사
(여수 월전교회)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근원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입니다”(엡 5:22~23).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거나 남편이 아내보다 훌륭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보다는 선택입니다. 행복을 선택할 수도,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이 가정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내의 순종을 통한 가정의 화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벧전 3:1).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칭찬해주면 신이 납니다. 밖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집에서 야단맞으면 소용없는 것이 남자들입니

다.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칭찬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받습니다.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는 남편은 아침이 기다려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뛰어나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십시오”(엡 5:25).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순종하기는 쉬운데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순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내를 통해서 얻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내가 자녀를 낳는 것은 남자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해서 낳는 힘과 능력을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내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자녀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아내를 주셨고, 아내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벧전 3:7).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남자가 힘이 세다고 여자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때리거나 겁주어도 안 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영적인 생활

가정의 원리

에베소서 6:1~4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막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가정을 이야기를 할 때 부부의 원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보여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만 줘도 남편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아내가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위탁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돼 있습니다”(엡 6:1~4).

성경은 자녀와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부를 먼저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자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돈이 들지 않지만 공경은 수고도 들고, 돈도 듭니다. 그렇다고 공경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도 드려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사람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경한다’는 말에는 부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막 7:11~13).

부모를 부양하고, 봉양하는 것을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전통이나 문화나 가치관의 변화로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훌륭하니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리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의 근원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을 드려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4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화나게 하거나 자극하거나 격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작품입니다. 부모의 말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창문과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부모의 창문이 흐려져 있으면 세상이 흐리게 보일 것입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겁주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손이 아내와 자녀를 때리거나 겁주는 손이 아니라 기도하고, 축복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는 책에서 눈물 나게 공감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지 수 만큼이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너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이 바뀌기 전에 아내가 먼저 순종하십시오. 자식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부모에게 잘하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이뤘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예수 그리스도, 미래를 잇는 꿈

일본 남부 오카야마현에 위치한 오카야마 심포니홀이 떠들썩했다. 한국에서 온 봉사자 461여 명과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한 일본인 1,845명이 내뿜는 열기가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1년 내내 따뜻하고 평온한 기후를 자랑하는 고장답게 날씨도 눈부셨다. 집회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다.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는 그렇게 시작됐다.

행사장인 오카야마 심포니홀은 집회시작 전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열매 또한 달고 풍성했다. 81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용기는 없지만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에 마음이 끌린다고 대답한 이가 159명, 기독교에 흥미가 생겼다고 한 이가 190명이나 됐다.

18일, 한일국제포럼과 가스펠나이트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는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진행됐다. 시작은 18일 열린 한일국제포럼이었다. 그란비아 호텔에서 열린 한일국제교류포럼에는 한국과 오카야마 정·재계 리더 261명이 모였다. 교류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세계적인 패션브랜드 'FOR-EVER21' 장도원 회장을 비롯해 前국회의원 정몽준, 세토우치의 다케히사 아키나리 시장, 세계적인 선박용 프로펠러 제조사 '나카시마 프로펠러'의 나카시마 히로시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저녁에는 러브소나타 전야제 '가스펠나이트' 행사가 열렸다. 일본인 음악가들과 크리스천들이 연합해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연합밴드팀 '빅토리밴드'의 회중찬양, 키즈코이어팀의 감동적인 율동, 합창 아티스트 '마미야' 등이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서빙고 3부 성가대의 국악찬양과 춤은 흥겨움을 더했고,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의 간증과 수준 높은 연주는

참석자들의 마음을 뺏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19일, 교회세미나와 러브소나타 집회

19일에는 교회세미나와 러브소나타 메인집회가 오카야마 심포니홀에서 열렸다. 교회세미나에는 오카야마 교계 목회자들과 리더십 177명이 참석했다. 이기복 교수가 '가정사역과 자녀양육', 박종길 목사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온누리교회 목회철학과 예수바보행진)', 김하중 장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라'를 주제로 강연했다.

대미는 러브소나타 집회가 장식했다.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와 서빙고 3부 찬양사역팀의 협연, 박진아 작가의 샌드애니메이션,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배재철, 절신 세리모니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목사는 '미래를 잇는 꿈'을 주제로 오카야마 시민들의 가슴에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메시지를 새겼다.

이 목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미래를 잇는 꿈을 꾸게 된다'면서 "부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재훈 목사의 간곡한 외침이 오카야마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81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기독교, 성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가 349명이나 됐다.

지난해 열린 러브소나타 오이타의 실행위원장 히로타 목사는 "오이타 행사도 좋았지만 오카야마 집회도 정말 훌륭하다"면서 "일본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써주는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서도 한국인 봉사자들은 숨은 주인공이었다. 서빙고 3부 성가대 김수정 성가사는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인들에게 찬양 '축복하노라'를 불러줬는데 어느 가곡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며 "우리의 수고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빙고 주차봉사팀 김주영 팀장은 "결산카드를 제출하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집회장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사람



다카타 야스히로 씨 부부

집회장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주인공은 '다카타 야스히로' 씨(히로에성약 그리스도교회)다. 올해 53세인 그는 전직 야쿠자다. 22살 때부터 40세까지 몸담았으니 18년 동안 야쿠자 생활을 했다. 그 중 10년 동안 형무소 복역을 해야만 했다. 그는 형무소에서 성경을 읽고 회심했다.

그는 젊은 시절, 먹고 살기 위해 야쿠자가 되었다. 당시에는 야쿠자도 직업이었다. 사회에서도 조직폭력배를 필요로 하던 어수선한 시대였다. 그는 몸담은 조직에서 출세하고 싶었다. '오야붕' (부모의 존칭어. 흔히 조직의 보스를 뜻함)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었다. 그는 두 번이나 형무소 신세를 지야만 했다. 첫 번째는 살인미수로 4년을, 두 번째는 권총소지 및 살인미수로 6년을 복역했다. 처음 4년 동안 복역하고 나와서도 야쿠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 또 다시 체포되었다. 그때 의형제 같은 형사를 만났다. 그 형사는 자신을 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대해줬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했다. 위기는 또 있었다.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자살시도를 했다. 3일 동안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어느 날 신문에서 '미션 바라바'라는 책 광고를 보게 되었다. "오야붕은 예수님"이라는 대사로 유명한 야쿠자의 회심을 다룬 내용이다. 그 책을 읽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야쿠자가 예수를 믿고 변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해 형무소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성경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성경에 대해 하나도 몰랐지만, 그 안에 쓰여 있는 말씀은 진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출소하자마자 교회를 찾았다. 그런데 그의 걸모습을 보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어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또 한 차례 절망이 찾아왔다. 무리하게 일하다 간경변증이 찾아왔다. 의사로부터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았다. 병원 옥상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저 멀리 '코지마성약그리스도교회'의 빨간 십자가가 보였다. 어차피 곧 죽을 거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교회를 찾았다. 그 교회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2007년 세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간증하고 다닌다. 그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진정한 부모는 오야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야쿠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라쿠엔 남문 옆 정자. 오른쪽에 보이는 석등이 기리시탄 표식. ▲ 오카야마의 골고다.

일본 기독교 부흥과 핍박의 현장 _ ‘오카야마성과 고라쿠엔’

숭고한 희생이 또 다시 부흥의 바람을

오카야마는 일본 혼슈(本州)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히로시마와 효고현, 세토나이카이(海)를 사이로 시코쿠 카가와현과 인접해 있다. 재해가 적어 예로부터 청명한 고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날씨가 좋아 과일 수확량이 많아 ‘과일왕국’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오카야마는 일본 5대 전래동화 중 하나인 ‘모모타로 이야기’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모모타로(복숭아 동자)가 원숭이와 꾀, 개를 부하로 삼아 마을사람들을 괴롭힌 도깨비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설화다. 오카야마역 광장에 원숭이, 꾀, 개를 데리고 가는 모모타로 동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오카야마는 일본 복지(福祉)의 고장이다. 1956년 일본 정부가 사회사업분야의 위대한 지도자로 꼽은 4대 성인이 모두 오카야마 출신이다. 일본 아동복지의 선구자 ‘이시이 주지’, 일본 최초 구세군 사령관 ‘야마무로 군페이’, 미국 선교사 출신으로 교육에 헌신한 엘리스 베티 아담스, 일본 사회복지의 선구자 ‘토메오카 코스케’가 그 주인공이다.

이시이 주지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887년에 일본 최초로 오카야마에 고아원을 설립했다. 일본에서 아동복지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이 1947년이니 이시이 주지는 이보다 60여 년 전에 아동복지를 실천했다. 그 밑바탕에 신앙이 있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고나서 의사를 그만두고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돌봤다. 못 먹고 가난했던 시절, 역병과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부모가 되었다. 많을 때는 한번에 1,2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봤다고 한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을 외판방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기 있는 구명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먹일 돈을 주셨다.”

그가 가리킨 곳을 보니 기도하기 위해 깔아놓은 방석이 무릎 모양만큼 패여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

다.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동역자도 붙여주셨다. ‘오하라 마고자부로’다. 그는 이시이 주지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오하라 마고자부로로는 막대한 부를 이룬 사업가다. 방직사업과 은행업(오카야마 지방은행인 주고쿠은행의 설립자)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가 ‘일본 아동복지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시이 주지를 만나면서 인생의 좌표가 바뀌었다. 오하라는 이시이 주지의 고아원 사역에 자금을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재산을 사회문화사업에 투자했다. 장학회도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는데, 그 장학회를 통해 일본의 천재 화가라 불리는 ‘고지마 토라지로’가 탄생했다. 오하라는 고지마를 통해 당시 흔치 않았던 서양미술품을 수집했는데 그렇게 사들인 미술품들이 오카야마 구라시키키시의 ‘오하라박물관’으로 발전했다. 오하라박물관은 오카야마의 대표적 관광지인 ‘구라시키키 미관지구’에 있다.

부흥과 핍박, 그래도 신앙을 지켰다

오카야마에는 대표적 명승지가 두 곳 있다. 오카야마성과 고라쿠엔 정원이 바로 그것이다. 오카야마성과 고라쿠엔은 아사히강 사이에 세워져 있다. 오카야마성은 1597년 초대 성주 ‘우키타 히데이에’가 만들었다. 우키타 히데이에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였다. 바로 이 성에 일본 기독교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우키타의 부인 코우히메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녀가 성으로 데려온 하인들과 무사들도 크리스천이었고, 그들이 오카야마성을 지었다고 한다. 우키타 히데이에가 부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그는 1586년 기독교 포교를 허락했고, 성 안에 예배당을 만들었다. 우키타의 관용으로 오카야마 지역의

크리스천 수가 증가했다. 1626년에는 오카야마의 골고다로 불리는 ‘토노야마 갓타이도코로’ (오카야마시 카도타카이와이 지역)에서 1,200여 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오카야마 목사들은 매년 부활절 아침에 오카야마성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오카야마성 맞은편에는 일본 3대 정원으로 손꼽히는 ‘고라쿠엔’이 있다. 고라쿠엔은 1700년에 완성됐다. 여러 개의 정자와 연못, 숲, 차밭, 두루미 사육장, 승마장과 궁술장까지 있는 넓은 정원이다. 이곳 남문으로 들어서면 조그만 정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석등이 ‘기리시탄 석등(크리스천 표식이 숨겨진 석등)’이라고 한다. 이 내용을 모르고 오카야마성과 고라쿠엔을 방문하면 단순한 관광지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곳이 오카야마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고라쿠엔이 지어진 것은 1700년으로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1644년보다 56년이나 뒤다. 크리스천의 씨가 말라버렸던 1700년에 어떻게 기리시탄

석등을 만들 수 있었을까?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피해 숨

었지만 신앙을 계속 지켜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흥하던 오카야마의 기독교가 1644년 일변하고 만다. 당시 성주였던 ‘이케다 미츠마사’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했다. 크리스천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은혜의 장소가 피가 흐르는 처형장으로 돌변했다. 사무라이가 앞장서서 박해했다. 결국 오카야마 처형장 6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잔인하게 죽어야 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의 피를 흘린 6곳의 처형장은 모두 교회가 되었다. 오카야마 나자렌교회, 니시다이교회, 박애교회, 히가시 오카야마교회, 리버사이드교회, 코난교회가 바로 그곳이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이기’ 가문에서 목사(이기 카츠히로 목사)가 나오기도 했다.

코난교회에 가 보았다. 코난교회가 있는 카도타카이와이에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시이 주지가 일본에 처음으로 세운 고아원터, 오카야마의 골고다 ‘토노야마갓타이도코로’가 있다. 토노야마갓타이도코로는 코난교회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있지만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초행자는 찾아가기 힘들다. 실제 모습은 너무 낡아 있었다.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한 그 곳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했다. 그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일대가 오카야마 기독교 부흥을 이룬 인물들과 시설들이 가득하지 않은가. 러브소나타 집회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또 다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러브소나타 집회로 이어졌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온누리교회 구호팀 22명 지진피해 현장을 가다

흐리다. 회색 비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흐리다. 마음은 더 흐리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구마모토로 향하면서 든 생각이다. 지난 10일 후쿠오카 공항. 두 번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에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도착했다. NGO 더멋진세상을 선봉으로 2000선교 본부, 일본어예배부, 대학청년부에서 17명과 동경에서 이도현 선교사, 후쿠오카에서 이형석, 서우숙, 김인경 선교사, 오사카에서 강진영 선교사가 합류했다. 총 22명의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 동안 구호작업을 펼쳤다. 오이타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으로 섬겼던 이노우에 마키 목사(사이키복음 그리스도교회)도 열일을 제쳐두고 와서 함께 땀 흘렸다. 아치오 온누리교회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와 성도 2명도 현장에 왔다. 이형석 선교사는 “구마모토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 왔다”고 했다. 나이도, 소속도 제각각이지만 목적은 하나였다. 구마모토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였다.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에서 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들과 함께 울다”

따뜻한 밥 한 끼로 마음 녹이고, 아픔을 나누고

지난 달 1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리히터 규모 6.5 강진이 발생했다. 이를 뒤 리히터 규모 7.3의 강진이 또 발생했다.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3대 성(城) 중의 하나인 구마모토 성과 일부가 무너졌다. 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구마모토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구마모토성의 파손은 피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는 여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구마모토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달려갔다. 지진 피해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펼치며 그들과 함께 울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은 구마모토 시내에 위치한 뽀렐교회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곧바로 하베스트처치로 향했다. 하베스트처치는 ‘규슈 그리스도 재해지원센터’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구호물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베스트처치 나카무라 목사는 “봉사자가 수십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 온누리교회가 도와주려 와줘서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절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기를 소망한다”고 애원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은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팀을 나눴다. A팀은 시내와 마시키마치에서, B팀은 아소지역에서 봉사했다. 구마모토 하베스트처치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내 일처럼 돕고, 위로하고

A팀은 마시키마치에 있는 ‘키야마그리스도교회’로 향했다. 마시키마치는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진앙지다. 피해가 정말 심각했다. 폭삭 무너진 집들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고, 수도관이 파열돼 수도공급이 끊긴 상태였다. 가스와 전기도 다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힘겨

워하고 있었다. 인스턴트식품으로 겨우 끼니를 때워가며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A팀은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과연 ‘밥 한 끼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다들 얼마나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모른다.

키야마그리스도교회의 한 스테프는 “주로 컵라면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으니 정말 행복하고 힘이 난다”고 했고, 나고야에서 왔다는 일본인 봉사자는 “한국 분들이 해준 맛있는 밥을 먹고 더욱 힘내서 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작렬하는 피아별 밑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요리하는 것이 힘들 법도 한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한지웅 형제(길공동체)는 “오늘 하루만 수백 장의 부침개를 부쳐서 달인이 된 기분”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구호팀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만들었고, 아낌없이 가득 퍼줬다. 그 모습을 본 인근 신사(神社)의 주지스님이 “기독교는 부자인가 봐요. 아낌없이 퍼주고...”라고 했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싶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부자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퍼주는 것뿐이라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어도

B팀은 아소 지역으로 향했다. 아소지역에는 일본의 최대 활화산인 ‘아소산’이 있다. 해발 1,592m에 달하는 아소산에는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에 걸쳐 있는 화구가 5개나 된다. 아소 지역은 지진 피해도 컸지만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훨씬 컸다. 미나미아소 지역으로 가는 도로는 아직도 통행금지 상태였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 곳곳이 흉한 민낯을 보이고 있었다.

B팀은 ‘가스펠 홈 글로리 처치’에 머물며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이 교회는 인구 3만여 명이 사는 아소 지역에 있는 유일한 교회다. B팀

은 후쿠시마에서 온 토다 씨 부부와 함께 구호작업을 펼쳤다. 토다 씨는 한신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모두 겪어본 사람이었다. 구마모토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달려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B팀의 임무는 지진으로 무너진 집과 축사를 철거하는 작업이었다. 현장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잔해가 가득했다. 흙물스럽게 남은 싱크대와 세탁기가 이곳이 집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급하게 비닐로 만든 축사에 네댓 마리의 소만 남아있었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 피해가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함께 구호작업을 하던 주민 아라이 씨도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두 번째 발생한 강진에 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을 뻔 했지만 주민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했다고 한다.

온누리교회 구호팀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유리 파편과 못이 신발을 찔러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갓 돌 지난 아들을 업고 잔해를 치우던 아라이 씨의 며느리는 한국에서 왔다는 기자의 말에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했다.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지원해서 왔다”고 했더니 “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지인들도 쉽게 돕지 않는데 자신들을 도우러 이국(異國)에서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위로가 된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B팀에 특명이 떨어졌다. 재해 복구 작업과 농사일로 이중고에 빠진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해달라는 것이었다. 무려 200인분의 식사를 갑자기 준비하게 됐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

공민관(마을회관)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다. 어린 아이부터 굶은 주름이 깊게 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마련한 카레와 반대떡을 먹기 위해 왔다. 음식이 주민들 손에 들려지자 그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온누리교회 구호

팀의 얼굴에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7일 동안 온누리교회 구호팀은 마시키마치와 아소 지역에서 잔해를 치웠고, 절망에 빠진 주민들과 세계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을 섬겼다.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줬다. 노인요양원에도 방문해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위로했다.

누구나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면서 일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앞장서서 했다. 함께 구호활동을 한 토다 씨는 “밝은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작업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했고, 서우숙 선교사는 “팔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온누리교회 구호팀 모두가 지진피해 현장에서 보낸 1주일의 정말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아직도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구마모토에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아직도 235개 피난소에 10,434명의 피난민이 지내고 있다. 1,455회의 여진이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5년 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복구가 아직도 진행 중이듯 구마모토 지역의 복구도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7,780억엔(약 8조3천억원)의 추경예산을 중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은 끊어진 도로와 다리 보수, 가설 주택 건축, 이재민 생활보조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도로나 집, 수도 등 제반시설은 돈을 들이면 새로 정비할 수 있다. 하지만 깨지고 금이 간 마음은 무엇으로 정비할 수 있을까. 갈라진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들이 고난 속에서 참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People

거리의 전도왕 이정옥 집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밟는 땅은 전도지, 만나는 영혼은 전도대상자

“전도는 제 삶이에요. 숨 쉬고 있는 한 전도의 엔진은 계속 돌아야죠.”

지난 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누리전도학교에서 이정옥 집사를 만났다. 그녀는 온누리전도학교 부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기자를 보자마자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 보여주었다. 사영리 전도지, 영어로 번역된 전도지, 어린이를 위한 전도 입체 블록(복음큐브), 어린이 그림 전도지였다. 그 모든 것들이 거리에서 만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했다. 그녀는 ‘거리의 전도왕’이라고 불린다. 서울 신림동, 한남동, 사당, 서울역 등지에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 미국, 터키, 이스라엘에서도 전도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그녀가 밟는 땅은 전도지이고 만나는 영혼은 전도대상자다.

기자는 지난 3월 말 개강한 온누리전도학교에 수강생으로 참여했다. 온누리전도학교는 전도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5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온누리교회만의 독특한 전도방법인 ‘5분 전도법’을 가르쳐준다. 5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주는 전도방법이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만난 이정옥 집사는 숨은 보석 같은 사람이다. 그녀의 삶은 곧 전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영혼구원에 관심이 많다. 감히 전도를 위해 살아온 인물이라고 소개할 수 있다. 탁월한 전도자이다. 그녀의 전도비법이 무척 궁금했다.

“예수님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소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과연 그것만으로 전도가 가능할까. 전도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다.

달동네전도단과 조선족전도팀

이정옥 집사는 항상 전도지를 들고 다닌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한다. 바로 이것이 그녀만의 전도비법이다. 그녀는 친구와 만나는 장소, 사는 곳, 지하철역, 주유소, 마트까지 다니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준다. 먼저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나서 전도를 실천했다. 매일, 매주, 10년 이상을 전도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약했는데 전도 때문에 하도 걷고, 가방을 메고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니 어깨인대 파열과 족저근막염이 생겼다. 그럼에도 그녀의 전도열정은 식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 신림동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팀전도를 하고 있다. 그 팀 이름이 ‘달동네전도단’이다. 달동네전도단은 온누리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방전도팀 3명과 예배팀 2명이다. 그들은 신림동 원신초등학교, 광신중고등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다.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성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도 나눠주고 있다. 그들은 6주 동안 복음을 전하

고, 거리에서 예배드린다. 달동네전도단은 신림동을 거점으로 삼고 한 명의 전도자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이들을 거리에배로 초청해 ‘미니 주일학교’도 운영한다. 학교 앞 놀이터, 운동장 등에서 공과공부를 하고, 찬양과 연기도 한다. 처음에는 생소해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친구들을 전도해 함께 거리에배에 오기도 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전도한 아이들을 차세대가 없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연결시켜준다. 주일학교가 부활하고, 아이들을 교회에서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그녀가 차세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4세에서 14세에 해당된 아이들을 방치한다면 다음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어둡겠지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본주의, 동성애, 진화론적 교육 등의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달동네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대림동에서 전도하는 ‘조선족전도팀’에 합류했다. 3개월 동안 100여 명의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거리에배에 14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그녀는 이것을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일으킨 전도운동’임을 확인했다고 표현했다. 올해 달동네전도단을 만들어 각 동네를 다니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배를 드리고 있다.

불교 신자가 복음 전하는 사도로

이정옥 집사는 모태신앙은 아니다. 그녀가 복음을 접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특별했다. 그녀는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절에서 동자승들과 밥을 먹고, 부모님은 절에 시주를 빼놓지 않을 정도로 불심이 대단했다. 또한 어릴 적부터 병치레가 잦아 생로병사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 시절에는 깊은 사색과 고뇌에 빠져 살았다. 철학책도 자주 읽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책을 주지 못했다. 숭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불교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

“숨 쉬고 있는 한
전도는 계속
해야지요.”



평소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전도도구를 보여주는 이정옥 집사.

회의 답이 높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문득 교회에 가고 싶어 친구들이 가는 교회 학예회 ‘문학의 밤’에 따라갔다. 그런데 친구들이 교회에서 놀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다. 그러던 그녀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김동리의 소설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다 하나님을 만났다. 홀로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인간을 구원해주는 분이려면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구원해주시지요.”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년부터 진리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가족들 몰래. 그녀의 믿음은 날로 성장했다. 그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도 가족들 몰래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것. 그녀와 어머니는 곳곳하게 교회를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담도암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암 선고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암이 1년 만에 재발해 의사가 4개월 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녀가 아버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지난날 살아온 그의 삶을 용서해주세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아버지가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4개월 후에 소천 하셨다. 이정옥 집사는 아버지의 회심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전하는 사도로 살기 시작했다.

국경, 언어, 문화를 뛰어 넘어 전도하기

이정옥 집사는 2002년 온누리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 지난날 아버지의

회심사건을 경험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 위치한 새크라멘토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영어로 전도를 했다. 관계전도를 했다. 관계전도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미국으로 이사 간 날부터 백인 소년 코리를 전도했다. 코리는 히피족이었고, 그의 엄마는 락가수였다. 나중에 코리가 변화되면서 친구들을 하나둘씩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엄마도 마음을 열었다.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정옥 집사는 관계망을 더욱 넓혀 갔다. 아파트의 청소부, 사무실 직원, 중국인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꼭 다시 만나게 되요. 주님은 제게 ‘전도는 왕의 초대장, 전도자는 우편배달부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옥 집사는 이웃들에게 무척 친절하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열려 있었다. 무신론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전도비결 중 하나다. 나라, 인종, 문화에 따라 전도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전도비결은 간증이다. 그녀는 만나는 노숙자, 환자, 아이들, 힌두인, 무슬림, 불교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한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 그녀는 다음세대를 위한 ‘한나기도운동(중보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기도는 자녀세대 위한 어머니 기도입니다. 자녀세대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현장에서 아이들의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기도운동에 동참해주세요.”

그녀의 주옥같은 간증을 듣기에 세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다. 앞으로 그녀의 전도행전이 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 기대된다. 그녀를 다시 만날 날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문의: oklee6190@naver.com

(한나기도운동)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밀알,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

S브릿지공동체 출범 5주년 ... “예수의 증인 그리고 흔적”

서빙고 온누리교회 S브릿지공동체가 창립 5주년을 맞이했다. 공동체 출범 5주년 감사예배에서 만난 리더십들은 S브릿지공동체 자람에 여념이 없었다. 강미향 목사는 밀알, 하태일 대표는 건강한 공동체, 이희진 여부대표는 사랑이라고 소개했다. 2011년 5월 33~44세 미혼청년들의 깊은 영성, 예리한 지성, 따뜻한 감성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겠다며 출범한 S브릿지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현재 S브릿지공동체 예배는 매주 오후 1시 30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려지고 있다. 멘토 13가정 부부들도 함께 예배드리며 청년들을 양육하고 지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5주년 예배에서 강미향 목사와 멘토들이 지체들을 축복하고 있다.



봉화 아웃리치에서 S브릿지 청년들과 지역주민.

S브릿지공동체가 출범한 이유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행 1:8),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갈 6:17) 것이다. 목표에 걸맞게 S브릿지공동체의 활약이 대단하다.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과 해외에서도 그들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나누주고 있다. 총주, 태백, 봉화, 정읍, 산청 등지의 농어촌교회를 찾아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고아원인 남산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도 다녀왔다. 올해는 경기도 여주에서 아이들에게 성경공부를, 고창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이마용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여름 아웃리치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김지를 고민하다 공식사역 외에도 12지파 포래모임을 만들었다. 이만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데 절대 소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배가고픈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흔적 남기는

강미향 목사는 S브릿지공동체를 밀알공동체라고 소개했다. 강 목사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S브릿지공동체는 자신들만의 사역을 만들기보다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이 특징이다. 강 목사도 차세대 교사 등으로 지원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밀알이 되면 그것이

곧 교회에 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세상에서 밀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강 목사가 S브릿지공동체를 처음 시작할 때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다.

“S브릿지공동체 청년들은 직접 만나보니 너무 멋있었어요.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재정도 어느 정도 있었죠. 거기에 교회에 온전히 에너지 쏟을 수 있는 지체들이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청년들을 섬기는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강 목사가 S브릿지공동체를 밀알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이것이다.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이 가진 장점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면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교회는 물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S브릿지공동체 지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건강한 공동체가 그 원동력

S브릿지공동체 하태일 대표는 참 열심히 섬기는 지체다. 새가족 순장부터 새가족 다락방장, 다락방장을 거쳐 올해 대표로 섬기고 있다. 그가 이토록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건강한 공동체가 원동력이예요. 좋은 사람들과 한 공동체에 모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는 2009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선데이 크리스천’이었

다. 마음이 안 좋을 때만 교회를 찾다가 결국 안 나오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친구가 대뜸 온누리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인가 해서 거절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양재 온누리교회에 갔다. 그날 들었던 말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교회를 혼자서 다니면 안 됩니다. 꼭 공동체 생활을 하십시오.”

공동체가 뭔지도 몰랐지만 친구에게 물어 공동체를 찾아갔다. 그 공동체는 브릿지33+공동체였다. 그 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다.

“저는 늘 좋은 제품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권하곤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교회가자고 권했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맞지 않았다. 당시 브릿지33+공동체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에도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도 못 오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S브릿지공동체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니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친구들을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S브릿지공동체에 오게 됐다.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신앙이 자라서 공동체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S브릿지공동체는 활기가 넘치는 곳이에요.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오세요. 신앙도 쑥쑥 자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는

이희진 여부대표는 S브릿지공동체 초창기 구성원이다. 순장, 다락방장으로 섬기다 올해 여부대표를 맡았다. 그녀가 생각하는 S브릿지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S브릿지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결혼할 나이이다 보니 이성교제도 활발하고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도 해주죠.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지요.”

그녀는 S브릿지공동체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했다. 그 기초가 바로 순모임이다. 순모임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고, 삶의 지혜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사실 그녀도 처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성도는 아니었다. 2009년에 온누리교회에 와서 여호수아공동체와 요셉공동체에 있었는데 일이 바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인지 늘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었다.

“혼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기댈 곳이 없었던거든요.”

그때 같은 공동체에 소속 되어 있던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빙고에 S브릿지공동체가 생긴단니까 함께 가보자는 것이다. 당시 그녀는 건강상의 이유로 순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힘든 시기에 그녀를 붙잡아 준 사람이 있다. 바로 S브릿지공동체 순장이었다. 그녀를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가끔 순모임에 나가더라도 언제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좋았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 세상이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꼈다. 하나님이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지체들과도 더욱 가까워졌다. 그렇게 S브릿지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S브릿지공동체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힘들고, 지쳐 있다면 S브릿지공동체로 오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응답한다 0519’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습니까?”

기독교 변증가 ‘라비 재커라이어스’ 초청 토론회

지난 19일,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온누리교회 대학부와 G&M글로벌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응답한다 0519’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응답한다 0519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라비 재커라이어스(RZIM) 초청 토론회이다. 주제는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습니까?’였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 2,630명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스기니스(소명)의 저자, 샘 올버리(가스펠 복음연합 편집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나눈 주요 질문과 답을 요약했다.



라비 재커라이어스

오스기니스

샘 올버리

“한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세월호 침몰사고, 메르스 감염사태, 환풍구 붕괴 사고 등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사건사고를 우연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사고는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무신론들에게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맹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토크쇼에서 한 학생이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한데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도덕적 가치도 존재한다고 믿나요?”라고 했습니다. 악이 있으면 선도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도덕적 가치입니다. 도덕적 가치의 존재는 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이 없다면 도덕적 가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이 존재하면 선의 존재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지혜의 문제를 바꾸십니다. 인간은 제한적인 사고로 고통을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국은 다시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게 하고, 견디도록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스기니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극심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의사였는데도 돈, 식량, 약 없이 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난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습니다. ‘홀로코스트(1930~40년대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혹독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

게 작은 불씨가 있다면 바람만 불어도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크기가 크다면 불씨도 커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불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난 세기, 인류에 참 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답하기 힘든 사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싶은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소명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스기니스: “무신론자들과 대화하면 “자유는 이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성경만이 자유에 대한 온전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인격체이며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출 3:13-14)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의 원어는 “멈춰 생각하고, 그와 대화한다”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순종하십시오.”

라비: “젊을수록 인생이 내 것이라고 착각

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정체성과 성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걸맞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에게는 성소수자 친구가 있고, 성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사촌오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인권, 권리가 신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보니 기독교의 세계관이 폐쇄적이라고 느껴지고, 거부감마저 듭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샘 올버리: “제가 18살이 되던 해 27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여성에 대한 호감, 성적인 매력을 동성에게서 느꼈습니다. 이성과 데이트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게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 지니라”(마 19:4-5)”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에게만 결혼을 허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갓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성에 대해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성애는 성에 대한 일그러진 잔상 중 하나입

니다. 성적 혼란은 인생을 완벽하게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도 성에 대한 욕망이 깊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장자의 재물은 ‘우리가 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쳐야 지극한 것이다’라고 했고, 양자역학도 ‘절대 진리’에 대한 회의를 시사 합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도 많은데 굳이 배타적으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비: “양자 물리학도 중요하지만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창시자 붓다는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면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고통에 대한 답을 “고통을 축소시키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덜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욕망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욕망을 버리라고 하지만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욕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6)라는 말씀처럼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고,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현상과 일관성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관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데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마 22:37).”

/ 정리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삼성서울병원에서 공연 중인 사랑챔버.

사랑챔버, 종교단체 최초 삼성서울병원 공연

제680회 자원봉사자 음악회에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개최한 음악회에서 사랑챔버가 종교단체로는 최초로 공연을 했다.

지난 12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제680회 자원봉사자 음악회에서 사랑챔버가 비발디의 사계등 모두

16곡을 연주했다. 삼성서울병원이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199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음악회에서 종교단체가 공연한 것은 사랑챔버가 처음이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사랑챔버의 공연을 보면서 많은 환자와 보

호자들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고, 사랑챔버 김지원 형제는 “환자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기례(62)씨는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사랑챔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아웃리치 스쿨 개강

6월 3일 서빙고, 10일 양재

아웃리치 스쿨이 개강한다. 아웃리치 스쿨은 6월 3일(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 19시 30분)과 6월 10일(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 19시30분)에 진행된다.

아웃리치 스쿨에서는 위기상황 대처방안에 대해 배운다. 새로워진 아웃리치 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웃리치 스쿨에는 올해 아웃리치를 실시하는 모든 부서(차세대, 대학청년부, 국제부, 공동체, JDS 등) 아웃리치 팀장, 부팀장, 총무, 선교유관기관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문의: 최희준 간사 02-3215-3208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양지 1기 전도학교 16명 수료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1기 전도학교가 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전도학교는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전도를 독려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지난 3월 13일부

터 5월 8일까지 9주 동안 진행됐다. 이론강의뿐만 아니라 전도실습도 병행했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일대와 경기도 이천 마장면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도 시켰다.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5월 29일, 시간: 주일 오후 5시~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대상: 3월 13일부터~5월 6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정환민	송선자 이제열 장미화 차승재	이병선 이은정 임현우 조성근 조이환 최승열	김덕환 박소현 박주형 안동환 이영재 유빛나 이경자 이병춘 정해인 홍재선	권순호 김경훈 박준형 오선희 조은숙 황권택	남기에 민경혜 박준경 오선희 조은숙 황권택	천종웅 최은정 S브릿지 김나래 김선화 박수영 백진영 오병노 오자혜 이미란 이태희 조현주 천윤희 최재혁 홍혜민
강서 김기훈 김준완 정동원 황새롬	광명 문예슬 조성은	마포 김형일 배우경 신정은 오지영 윤치웅 이광호 이승연 조해규 차반디 허은미	성북 이상완 이윤정 한은선 현종대	영등포구 강김선 권학자 김우석 김종관 조호성 황지영	이수 김영숙 박성덕 배금란 백수정 조태호 차혜영	중종로 황재임 한양사역 이시정
고양은평 문홍운 여승연 원현미 유지현 홍범식	노원 박희영 신지혜	동대문 김지선 김현진 김혜정 이민정	북부리 권민수 김다애	영산 곽예영 김준성	이촌 강미라 박내선 박성철 박소연 여민경 이경옥	특별한초대 김아현 최용석 장영 정윤희 최석진 허광욱
관악구 김영선						

의료선교팀 CMN 해외 아웃리치 팀원 모집

본부

일정: 8월 13일~21일

장소: 아프리카 세네갈

문의: 오천병 간사 02-3215-3786

마하나임

일정: 7월 18일~24일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문의: 권세윤 팀장 010-8898-3719

BEE

일정: 8월 23일~28일

장소: 인도네시아 롬복

문의: 윤상엽 팀장 010-9439-1180

마노아

일정: 8월 12일~17일

장소: 네팔

문의: 송영주 팀장 010-3005-4787

드림

일정: 8월 10일~15일

장소: 인도네시아 팔렘방

문의: 우승엽 팀장 010-4230-1474

라파

일정: 7월 21일~25일

장소: 스리랑카

문의: 심형섭 팀장 010-3227-9915

토브

일정: 7월 29일~8월 3일

장소: 인도네시아 살라피가

문의: 김택수 팀장 010-8902-5987

살롬

일정: 7월 16일~21일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문의: 황영진 팀장 010-7457-0327

팀장간사 이레요양원 아웃리치

환경정리, 배수로정리, 제초작업 실시



배수로 정리중인 이준호 목사와 팀장간사들.

김영수 장로(분당B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시설로 11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날 팀장간사들은 환경정리, 배수로정리, 제초작업 등을 통해 이레요양원의 묵은 때를 벗겼다.

김영수 장로는 “말린 일이 많아 걱정이 많았는데 간사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전영욱 간사(2000선교)는 “이레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오늘 제초작업을 한 마당을 보고 정말 좋아하셨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다.

온누리교회 간사공동체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는 아웃리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교회 팀장간사들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준호 목사(목회행정), 김경렬 총괄간사를 비롯한 팀장

간사 9명이 지난 13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이레요양원으로 아웃리치를 갔다. 이레요양원은

세계관학교 부모교실 운영 중

매주 목 오후 7시30분 서빙고 Acts29홀

세계관학교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에서 부모교실을 열고 있다.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과정이

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5월 26일까지 아이스쿨로 신청하면 된다.

5월 19일에는 ‘미디어 중독’이라는 주제로 신상언 선교사(낮은울타

리문화선교회 대표)가 강의했다. 5월 26일에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김 혁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6월 2일에는 ‘동성애(성정체성)’를 주제로 이태희 목사(한국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 6월 9일에는 ‘과학과 세계관’ 주제로 신문환 교수(연세대학교)가 강의한다. 문의: 02-3215-3533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제1100호 | 2016년 5월 22일(주일)

창조신앙교육 축제를 앞두고



/ 제승모 박사(창조과학회)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

나에게 창조신앙교육이 가장 시급한 세대가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이라고 답하고 싶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차세대를 위한 창조교육은 일반 교육현장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신앙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독교인 초등학생 비율이 3%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나는 창조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나는 몇 해 전, 서빙고 온누리교회 초등부(꿈땅) 교사로 섬겼고, 작년부터 창조과학선교팀에서 어린이 사역을 맡고 있다. 그동안 초등부 교사로 섬겼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랐다. 어린이 창조과학스쿨에 참가할 아이들을 모집하고, 교회가 봄비는 토요일 오후에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였다. 좀처럼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주일 아침 이천만 광장에 서서 어린이 창조과학스쿨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목표로 삼았던 5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을 보내주셨다. 예상 밖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더 넓은 장소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팀원들과 함께 기

도했더니 다른 사역팀에서 적절한 장소를 양보해주셨다. 이러한 일들은 경험하면서 창조신앙교육 축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봤다. 하나님은 뼈들을 연결 짓고, 힘줄을 붙이셨고, 살과 그 위에 가죽을 덮어주셨다.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어 마른 뼈에 생명을 주셨다.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모습과 같았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과 회복의 예표다. 진화론만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회복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 먼저 회개하고 돌아쳐야 한다. 끝까지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이다.

또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인정하는 창조신앙을 전수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뿌려진 작은 노력의 씨앗들이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이 아닐까. 하나님이 점차 회복시키고 이 땅에 부흥의 시절이 다시 오리라고 기대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북한중보기도모임 간증



/ 송웅주 형제(한터공동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2002년 가을학기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여호수아공동체 예배를 드렸다. 여호수아공동체에는 북한선교부도 있었다. 나는 북한선교부에 소속되었다. 비전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다. 다른 언어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선교부에 들어갔다. 북한중보기도모임은 북한선교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중보기도모임은 목요일 저녁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됐다. 기도모임이 있다는 것을 듣고 참석하게 됐는데 찬양인도를 부탁받았다. 찬양인도를 하다 보니 기도인도도 함께 하게 됐다.

기도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게 됐다. 그런데 일반 뉴스를 통해 기도제목을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내용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께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도제목을 정했다. 요즘은 그렇게 정한 기도제목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기도제목인지를 많이 생각한다. 스스로 편견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

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 하나님께서 탈북민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것도 기도였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읽는 것이다. 기도가 아니면 그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일까. 나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기보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더 크다. 나는 기도를 할 때 성경을 본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 속에서 보기 위해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북한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또 주시는 은혜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정권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 정죄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이다. 북한중보기도모임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

가정사역 '아름다운 동행' 간증



/ 김대현 성도(서초C공동체)

더 아름다운 동행을 꿈꾼다

나는 결혼 전에는 신앙이 없었다. 친지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예쁘고, 같은 의사였으며,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에 끌려 결혼을 했다. 잘 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예상과 달리 시댁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심한 다툼 속에서 고통과 절망감을 맛보았다. 아내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나의 바람과 달리 거의 매주 여행과 잦은 외식을 요구하였다. 아내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이 남편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기에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다.

세월이 약인지,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 갔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자 했던 것이 가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우리 부부는 더 나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부부교정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에 참가신청을 했다.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참 많다. 아내는 예수제자학교(JDS)를 통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커졌고, 나는 아버지학교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등을 통해 부부와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

을 알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지금 건강한 가정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었다. 평소엔 말을 하진 않던 아내가 방언이 터진 수준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기도 했다. 한 번은 집에 가는 길에 아내의 이야기에 코멘트를 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평소 나는 아내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 부부가 가진 고민이나 불만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열심히 적용해 보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때로는 다투기도 한다.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들만 꺼내놓고 잘 수습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아내와 나는 적당한 부부가 아니라 진정한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고, 돕는 배필이 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것이다. 아내와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할 것이다.

일대일 양육자 과정 수료 간증



/ 김정은 성도(이수공동체)

그 씨앗이 새싹이 되었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당시 나는 일대일게의 폭탄이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문학작품에서 얻은 일천한 지식이 전부였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영적 감동이나 성령 충만한 경험에 있어서가 아니었다. 생명공학을 전공하던 아들이 “이 세상은 너무 정교해서 우연으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도 창조주 혹은 인식 너머의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나에게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은 ‘지식의 습득’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양육자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양육자님은 1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데, 다시 공부한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 같지 않았다. 다음 만남에서는 확신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이제는 천국의 문간방에 들지언정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이수하면서 매일 조금씩 배워가고, 한 가지씩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롬 6:11)”라고 구속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롬 7:25)”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했다. 나와 같이 미숙한 지체가 ‘믿는다고 시인한 것만으로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깨달았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하려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때가 되었을 때 양육자님을 만났고, 양육자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씨앗이 되었다. 그 씨앗이 이제 새싹이 된 것 같다. 누군가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 지라도, 물 한번이라도 줄 수 있는 양육자가 되고 싶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온누리요양센터 개관 10주년을 보내고

모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조항진 장로
(한강공동체)

온누리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국외로 선교사 파송에 힘썼다면, 국내에서는 온누리복지재단이 공활사역에 힘써오고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의 시작도 공활사역이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온누리교회는

가출청소년들을 돌보던 ‘나눔과 섬김의 집 하 나로’, 장애인 작업시설인 ‘변동코이노니아’, 효창 공원 인근에서 7년간 60만 명의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섬긴 예수향기회의 노숙자와 독거노인 급식사역, 노인 이용시설인 ‘중랑노인복지관’, 고아를 돌보던 군산 ‘일맥원’ 등 다양한 공활사역을 했다. 공활사역의 저변이 넓어지고, 사역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용조 목사님의 의견과 복지부장관으로 재임하던 김모임 권사님의 도움으로 1999년 온누리복지재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생겨나면서 예수향기회의 급식 사역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 포함)에서 흡수했다.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온누리요양센터는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6개 시설 중 가장 마지막에 생겨난 시설이다. 나에게는 참 의미가 깊은 시설이다. 2005년 5월 초쯤으로 기억된다. 몇날 며칠을 교회 리더십들과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인근으로 온누리요양센터 부지를 물색하고 다녔다. Acts29 비전빌리지가 있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서 선교와 복지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취지였다. 어느 날은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부지를 물색했다. 남은 후보지는 단 두 곳

뿐이었다. 먼저 들린 곳은 저수지 인근이었다. 논과 밭이 많고 별이 잘 드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 목사님 마음에는 시원치 않았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부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산골짜기에 녹슨 철근 몇 개가 서있는 폐허였다.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주위를 둘러보시던 하 목사님이 활짝 웃고 계셨다.

“이곳이 딱입니다. 온누리의 비전과 이곳의 환경이 만난다면 육과 영을 회복시키는 훌륭한 요양센터가 될 것입니다.”

흥한 철근이 세워져있던 그 땅에 지금의 온누리요양센터가 세워졌다. 2006년, 50여 명이던 입소어르신은 이제 140여 명을 넘어섰다. 온누리요양센터에 입소하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도 참 많다. 온누리요양센터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의 결정체다. 이 자리를 빌려 후원과 기도로 힘써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를 전한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한결 같이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온누리요양센터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에 감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감사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드릴 때 할 수 있다.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사소한 일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고 매일같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입소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와 감사를 전할 수 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다. 은혜를 줘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소경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비된 것과 같다. 빼어난 자연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온누리요양센터 가족들이 매일 감사를 느끼고, 낮은 곳에서 섬기러 오신 작은 예수님처럼 어르신들께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황보은선 권사
(이촌공동체)

지금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이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이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감사의 달이기도 하다. 이러한 감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주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우리에게 물, 공기, 햇빛, 가족 등 꼭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도 생각난다.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주셨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그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 열매 맺고 자라나야 한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

다. 또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모든 행실을 거짓 없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바라보면 혼돈과 무질서와 악한 말들이 가득하다. 서로 비방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허탄한 자랑을 한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서로 다투고 원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이로써 경제는 흔들리고, 미디어가 젊은이들을 미혹해서 혼돈하게 만들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육신으로 행하고 있다. 육신의 모든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낀다. 모두 깨어서 함께 기도해야 할 때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자. 그 성산에서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자. 서로 사랑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루어가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자.

신앙에세이

공평한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간다



한화수 목사
(요성공동체)

우리는 구원 이후 삶에서 무엇인가를 겪는다. 또한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구원받고 난 이후 삶에는 경험이 있고, 이해가 있다. 그것은 시간 속의 경험이자 이해이다. 시간을 벗어나면 경험이 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다.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제, 오늘, 내일이 주어졌을까? 시간은 괴로운 것을 겪게 하고, 눈물도 흘리게 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워주고자 했을까? 시간 속의 경험과 이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존재에 있다. 로버트 클린턴은 “영적 지도자는 주어진 시간을 통해 경험과 이해를 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그가 존재로부터의 사역

을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존재로부터의 사역은 시간의 의미이다. 존 맥스웰은 “더 나은 일을 하려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보다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 목사가 되고, 얼마나 일을 잘 하는가는 부차적인 관심이다.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아직도 가야할 길>의 저자 스타트 팩이 한 랍비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참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랍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데 어째서 너는 너로서 살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셨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것은 오직 시간의 작업이며, 시간의 승

부다.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의 존재를 다듬는 조각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구에 대한 특징을 알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듯이 시간의 특징을 안다면 존재를 다듬는 조각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간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시간은 공평하다. 수잔 세거스트롬의 책 <행동하는 낙관주의자>에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자원이 있다”고 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뜻이다. 돈은 소유의 차이에서 오는 불공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은 소유의 차이에서 오는 불공평이 없다.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은 흘러간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시간은 시 한편을 낭송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시를 읽기 시작하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읽을 시가 남아 있지 않다. 이것이 시간이며 역사다.

셋째, 시간은 냉정하다.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칠 때 교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어느 날엔가 마주칠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어느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나는 이 내용을 마음 깊이 새겼다. 이 말은 내게 시간의 냉정함을 깨닫게 해줬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시간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 매일 영성관리를 하지 못하고, 독서를 하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열어주려고 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오만이다. 시간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시간은 냉정하기에 솔직하다. 나는 냉정한 시간을 솔직하게 사용해왔고, 사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깨달았다. 나는 지금도 냉정한 시간 앞에서 회상하고, 실천하고, 결단한다.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간다. 우리 모두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활기차고 역동적인 아프리카의 예배



노코 만둥구 장드디외 목사
(콩고민주공화국 콰바연아
웨교회, 햇볼트리니티 신
학대학원 재학)

춤은 아프리카 문화의 중심이다. 아프리카 춤은 기원전부터 내려오고 있다. 춤이 아프리카인들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춤을 주고, 노래하는 것은

아프리카 교회의 예배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아프리카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고, 자유롭다. 보수적인 기독교나 가톨릭이 아니라면 종교의 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현대 악기와 전통 악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찬양을 한다. 자연스럽게 춤이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아프리카 예배는 활기차고 역동적이다.

아프리카는 4개 권역으로 이뤄진다. 그중에서 내가 살던 콩고민주공화국은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불어권 아프리카’라고 지칭하는데 최근 들어 토착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보다 프랑스어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불어권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서 통역자가 있거나 없거나를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로 잘 알지 못해도 상호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가정공동체처럼 여기

며 예배드리고 있다. 셀(cell)이라고 불리는 마을 단위는 기도그룹의 형태다. 매주 가정심방을 하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기도가 있다.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서 부서질 기도모임을 하고, 성경공부 세미나도 열린다.

아프리카 교회의 목회자들은 매우 활기차다. 열정적으로 설교한다. 많이 움직이고, 큰 소리를 낸다. 성도들은 ‘아멘’으로 호응한다. 아프리카 교회의 설교의 주된 주제는 ‘해방의 메시지’다. 전통적인 관습으로부터 성도들을 해방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번영의 메시지’도 많다. 가난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아프리카의 상황에 비춰 정당화되는 주제이다.

또한 아프리카 교회는 복장이 중요하다. 여성은 교회에서 바지를 입으면 안 되지만 특별한 날에는 허용된다. 여성이 남성 앞에서 미니 스커트를 입는 것을 파렴치한 행위로 간주한다. 신체노출을 삼가고, 예의 바른 복장을 해야 한다. 반면 남성은 눈에 띄는 머리 모양을 하면 안 된다. 불어권 교회에서는 남성이 귀걸이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여성에게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지역종교는 아직까지도 기독교를 매우 적대시한다. 이방신 예수를 섬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모든 아프리



예배드리고 있는 아프리카 성도들.

카인들이 아프리카 신에게 귀의할 때 저개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 나름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신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아프리카 예배는 오랜 시간 동안 드린다. 설교자는 양복 상의를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자들로서 예외적인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약속을 잡지 않으면 일반 성도들과 접촉을 많이 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불어권 아프리카 교회는 역동적인 경배와 찬양, 옷차림, 공동체의 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프리카 권역에 구원의 메시지가 더 잘 전해지려면 말씀에 기초를 둔 목회자 파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신간

성령을 제대로 아십니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조용묵, 최완기 저 | 두란노 | 13,000원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익숙하게 듣는 말이 ‘성령’이다. 그런데 성령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성령에 대한 견해도 많다. 그래서인지 성령에 대한 책이 많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이미 성령에 관한 책이 많이 출간되었는데 굳이 또 한권의 책을 출간할 필요가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 왜곡된 이해를 하고 있어서였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한다.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성경을 근간으로 한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성령 충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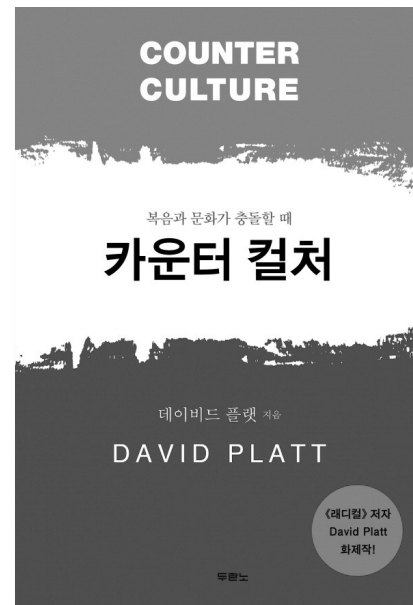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

〈카운터 컬처〉

데이비드 플랫 저, 최종훈 옮김
| 두란노 | 16,000원

〈래디칼〉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교회에 ‘복음을 통한 철저한 돌이킴’을 외쳤던 데이비드 플랫의 신간이 나왔다. 〈카운터 컬처〉는 빈곤, 동성결혼, 난민, 낙태, 고아 등의 문제에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대는 보편적인 진리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때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자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라고 주장한다. 혼탁한 시대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그에 따른 대가를 가까이 치르는 ‘카운터 컬처’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해봤을 고민들을 다루고 있다. 흔들리는 믿음과 신념을 성경적인 원리와 진리로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긍휼과 용기를 품고 하나님의 진리를 겸손하게 전파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9:0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땅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전 몽골어예배 13:00 프레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목요일 10시30분 / 누리홀 /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OEM한국어교실 교사(봉사자) 모집

요일: 매주 토요일(계절방학 있음)

시간: 오전 9시~오후 2시

지원자격: 등록교인, 일대일수료자

제출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일대일목회특별강 안내

일시: 5월 22, 29일 오전 8:10~10: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

참가자격: 모든 양육자(오픈강의)

문의: 오승택 집사(010-3004-3311)

웬 이스라엘? IBS심화반 37(리더교

육 중심)모집

일시: 6월 11일 ~ 7월 9일(5주과정)

매주 토요일 오전 10:20 ~ 12:3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등록: 선착순 40명 (등록비 1만원)

대상: IBS 수료자

문의: KIBI 사무실 02)792-7075-6

온누리엠센터 다문화유치부 교사 모집

일시: 주일 오전 9:30~ 12:30

장소: 안산 온누리 NEW M센터 B105호

문의: 장미숙 간사(010-4732-4371)

서빙고 주일 7부예배 싱어 모집

대상: 온누리 교인

연습시간: 주일 저녁 7:15~8:30

예배시간: 주일 저녁 9:00~10:10

문의: 김미경 팀장(010-4876-1480)

두란노 아버지학교 자원자 모집

일시: 7월30일-8월27일(매주 토 오후5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회비: 120,000원

접수: 02-2182-9100 / www.father.or.kr

문의: 서관형(010-9238-7364)

미얀마 단기의료선교 팀원 모집

일시: 7월 9일~7월 14일

장소: 미얀마 양곤

모집대상: 의료인, 봉사자

문의: 김조경(010-4369-1211)

두란노 QT베이지 세미나

일시: 5월 30일(월, 10:00~17:00)

대상: QT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강사: 허광희 전도사(유티전문 강사)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문의: 02-2078-345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은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사랑부 교사 모집

문의: 조현배 총무(010-3342-9459)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

제1100호 | 2016년 5월 22일(주일)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코모닝빌딩 3-6층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3-5층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2-3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3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강동 최원준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기도처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9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663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940-1900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뉴욕IN2 Marc Choi 목사 1-212-427-2055 316 East 91st St., New York, NY 10128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오세아니아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alia 오클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동경 문봉주 목사 81-3-6658-1530 (130-0012)Tokyo Onnuri Vision Church Saisei Kinsicho Bldg. 3F, 8-11, 2Chome Taihei, Sumita-ku, Tokyo, JAPAN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hisinsaiiba Chuoku		- Osakasi Japan 542-0083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r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야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아미나카 토모요시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lyoku, kyoto japan ■중동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김영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홍성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 (内大地	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 • 단둥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eerxiang (526lu Paota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민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Shi Minhangqu Caobao 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장쑤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승국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	--	--	---	--	---	---

참가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최원준 도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영 강일하
권오환 권영갑 권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전도사(전임)

김성원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림문용 마이크리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파트)

김정순 김철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용주 노규석

◆전도사(파트)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유식 김재석 김정숙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하스데반 이기복
김도일 이기복

◆협력목사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부목사(파트)

김은혜 박상하 김중영 김창성
김영민 김재승 변대섭 유승현

◆전도사(전임)

김종호 박사무열
박승훈 배행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호 한영철

◆경배와찬양

크리스천 뮤지션과 함께하는 음악과 영성의 하모니

김영우의

스윗
사운즈

2016년 6월 3일 (금)
오후 10시 40분 첫방송

진행 김영우 (그룹 '스윗소로우' 보컬)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 ARS 060-700-1660

